

# 철도교통 중심지 구축 총력

## 익산시, 국토부에 관련 사업 반영 요청 유럽으로 뻗는 대륙철도 전진기지 마련

익산시가 국내 최대 철도망을 활용 해 대륙철도망과 새만금 항만·항공을 연계한 트라이앵글 구축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여객과 철도산업에 이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과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완료 예정인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7가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2021~2030)의 철도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국가철도의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지정을 위해 이미 관련 조례(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국내 철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9년부터 철도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거점역사 개발 및 정비방안 검토'가 반영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고속철도 특위 출범 등 남북철도 연결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조

성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과 익산-대야-군장국가산단 연결을 통해 환해권 시대 철도물류수송의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업철도 연결은 향후 중국, 러시아, 유럽 수출을 위한 식품유통의 핵심이 될 선제조건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관련 용역을 완료한 결과 경제성분석 각각 1.08, 1.10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산업선 건설을 반영하도록 공동건의했으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하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에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료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했다.

## 원광대병원, 의료인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료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했다.

원광대병원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 의료인 및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를 얻어 응급실 인접 장소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예진표를 지참하고 당일 접종 장소에서 대기, 접수, 예진, 접종, 관찰(약15분-30분)순으로 접종을 마치게 되는데 예진을 통해 접종이 연기될 수도 있다.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 본

인 컨디션 체크, KF마스크 착용, 예진표 지참, 사원증 또는 교직원 번호 숙지, 타 접종 14일 이내 간격 유지 등 유의사항을 숙지토록 한다.

이재훈 감염관리실장은 "본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방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원광대병원을 찾는 환자 및 내원객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방 접종 후 교직원 및 지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둠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회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배달의 명수’ 출시 1주년 성과 이벤트

2021년에도 Only ‘배달의 명수’로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기회 노력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군산 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오는 13일 첫 돌을 맞이한다.

‘배달의명수’는 1년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에게 동네상권의 희망을 전달했으며 군산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준비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년을 지내오면서 배달의 명수가 군산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코로나 19로 어려운 골목상권에 힘이 되고자 출시한 배달의 명수, 1년, 이벤트 추진

‘배달의명수’가 오는 13일 출시 1주년 감사 이벤트를 다양한 경품행사로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년 ‘배달의 명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소비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2021년도 Only(오직) ‘배달의 명수’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채롭게 준비됐다.

행사는 ‘배달의 명수’ 생일인 3월 13일을 전후로 생일전야(12일), 생일(13일), 뒷풀이(14일) 3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배달의 명수’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별로 추첨을 실시해 경품을 지급한다.

주요 경품은 맥북에어(노트북), 갤럭시 시버즈, 에어팟이 일자별로 준비돼 있으며, 3일동안 농산물선물세트(1일 10명), 배달의 명수 할인쿠폰(1일 20명)도 당첨자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 명수’ 페이스북과 어플,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배달의 명수 주문금액 100억 눈앞에,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어플로 안정적 정착

배달의 명수는 출시 초기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에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는 군산만의 지역어플인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착한 소비와 가맹점은 배달의 명수를 통해 절감되는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앱으로 자리매김했다.

출시초기 가맹점은 불과 480여개, 출시이후 가맹점은 크게 늘어나 현재 1,222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으며, 5,138명의 가입자는 현재 12만6,202명, 주문건수는 37만건, 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 정착을 기반으로 군산 소

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계획

배달의 명수는 음식배달앱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 군산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배달의 명수에 입점해 비대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준비했다.

1단계 사업(요식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작년 10월부터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티푸드목 확장(꽃집, 건강원, 방앗간, 정육점, 떡집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시장 진출기회를 도와 기존 배달앱에서 주조하지 못했던 품목들의 근거리 배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로컬푸드, 골목수퍼 배달, 품목확장과 편리한 쇼핑기능 등을 접목하여 지역내 활용가치를 높이는 군산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준비 중에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년여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온 것 같다”며, “비대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명수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단속 강화

음식점·유흥시설 등 6개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

익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음식점 3곳, 단란주점 3곳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1건, 단란주점 22시 이후 영업 3건 등이다.

시는 원스트라이크 이웃제를 적용해 과태료(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테이블간 거리두기, 업소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역 소식통

행복학습센터 사업자 모집

찾아가는 지역 평생교육의 바람이 거세진다!

군산시는 마을 단위 주민이 함께 모여(학습공동체) 평생학습에 의한 배움을 토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등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마을자원·문화유산·역사·관광자원 등과 연계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주제학습 강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다.

선정 규모는 5개소 내외, 지원 규모는 개소당 1천만원 이내로(군산시 직접 집행)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군산시 교육지원과에 이메일(skyvillageroad@korea.kr)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화학물질관리지도 시연회

군산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시연회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지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앱 시연회를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앱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화학물질 관리지도는 지역 내 화학물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인 폭발성 부식성 독성 등 전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치를 기반으로한 모바일 앱으로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대피장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위치에서 화학사고 발생지점, 풍향을 고려하여 대피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시해주며 팝업창을 통한 화학사고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